

임기 6개월 남았는데...시의원 공약 이행률 겨우 22.6%

광주·전남 광역의원
공약 이행 점검



〈6〉광주시의원

3년 전 치른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한 공약을 저마다 내걸었지만 임기를 6개월 남긴 현재까지 70% 이상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약 가운데는 준공도 되지 않은 시설 활용 사업을 약속하거나 관리 주체가 광주 자치단체가 아닌데도 공치사를 위해 내세운 공약도 있었다.

14일 광주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23명의 광주시의원이 배부한 선거 홍보물에 담긴 공약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해본 결과, 공약 이행률은 2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원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에서 공약이 담긴 후보자 선전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의원은 9명뿐이었다. 비례 3명과 무투표 당선된 11명은 정당 공통 공약을 내세웠거나, 개인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시의원 당선인 9명이 내건 공약은 모두 145개로, 한 명당 16개의 공약을 세운 꼴이었다. 광주에 서는 한 초선 의원의 공약이 33개로 가장 많았다. 공약이 가장 적은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공동과 지역 공약이 각 2개씩 4개뿐이었다.

이들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기에 앞서 공약을 '공동'과 '지역 맞춤형'으로 크게 구분한 뒤 건설·복지·생활·경제·교육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등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같은 정당 후보들이 반복한 공약은 '공동 공약'으로 분류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은 건설(건설·교통·도로·개발·SOC 등), 복지(복지·안전·보건·의료·환경·노동·노인·장애 등), 생활(생활·문화·예술·관광·체육 등), 경제(경제·일자·기업·취창업·금융·소상

지역 맞춤형 공약 31건 중 7건 이행

유권자 공약 이행 여부 확인 불가

경실련, 공약 기재 기준 강화 촉구

공 등), 교육(교육·아동·청소년·학교·급식 등) 5개 분야로 나뉘었다.

광주시의원들의 맞춤형 공약 비중은 21.4%(145개 중 31개)에 불과했다. 지역 맞춤형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각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등에 확인해 보니 실제 지켜진 공약은 7개 뿐(22.6%)이었다. 22개(71%)는 당선된 지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지켜지지 않았고, 나머지 2건은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미이행 공약 가운데 생활 부문 공약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9건, 경제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들여다보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다목적시설(내년 준공 예정)에 대한 활용 고도화 사업을 내세웠거나, 사회 기반 시설 관리 주체가 전남 자치단체임에도 관련 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지역에 등하고 안전도우미를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사업들이 이미 2018년에 비슷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했다.

광역의원들이 내건 공약 10건 중 7건은 임기를 다 채워가고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건 유권자들이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광역의회 홈페이지 공약 게시 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의회 중 소속 의원의 선거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의회는 경기도와 제주도 단 2곳뿐이었다.

경실련은 전국 광역의회에 공약 기재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표준화된 공보 양식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공약 추적단·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bhj@kwangju.co.kr



"할머니·할아버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광주시 북구 풍향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햇살·사랑하는·키즈 사랑 태권도 관원들이 지난 13일 지역의 홀몸 어르신 가구 인근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이 봉사활동은 지난 2019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전남도, 북극항로시대 여수·광양·목포항 미래 발전 모색

'해양항만활력추진단' 토론회...수출입 물류·R&D 복합단지 조성 필요

전남도가 광양항을 에너지·자원 물류 중심으로 육성해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삼겠다는 미래 발전 방향을 내놨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목포 오션호텔에서 '2025년 해양항만활력추진단' 토론회를 열고 전남지역 무역항 발전 전략과 정책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전남도와 지방 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현덕(순천대 물류학과 교수) 전남도 해양항만활력추진단장은 '북극항로 시대 여수·광양항의 전략적 접근 방안' 발표에서 '여수·광양항은 산업 기반, 지리적 이점, 스마트·그린 혁신 잠재력 등을 갖춘 북극항로 특화항만으로서 전략적 포지셔닝, 기술 혁신, 러시아·북유럽 항만과의 글로벌 파트

너십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여수·광양·목포항의 발전을 위한 여러 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임영태 국토연구원 박사는 "여수·광양·목포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물류 중심 기능을 유지하되, 항만배후단지를 상업·주거·업무·연구개발(R&D)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고도화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화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100(RE100),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남에 유치된 오픈AI 데이터센터와 국가AI컴퓨팅센터 역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이 필수고, 해상풍력 발전 수요도 크게 늘

어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과 전용부두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수·광양·목포항의 부두 인프라 개선과 자동화 추진, 항만-산단 연계 물류체계 강화,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가 토론장에 올랐다.

전남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각 항만의 물동량 구조와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항만을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여수·광양항의 친환경, 스마트·자동화 항만 인프라를 강화해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액체·벌크 화물 중심의 물동량 구조를 반영한 에너지·자원 물류 중심항만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목포항은 해상풍력·자동차 화물 등 산업 자원과 해양관광 기능 강화를 통해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위해 철재부두와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내항 재개발과 전수공간을 조성해 복합항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시, '라이즈' 사업 수행 대학 추가 공모

30일까지...48억원 투입 대구와 초광역 협력사업 신설 등 추진

광주시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지역 정주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48억원 규모의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수행 대학을 추가로 찾는다.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총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라이즈 사업을 수행할 대학을 추가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비는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지방비 매칭 인센티브에 시비를 더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기존 과제 2개와 신규 과제 1개 등 총 3개다.

가장 규모가 큰 '광주형 로컬커스터마이징 청년 혁신인재양성' 과제에는 3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융복합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광주와 대구가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과제는 광주의 주력인 인공지능과 대구의 로봇 산업을 연계한 것으로, 3억원을 들여 표준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최종 수행 대학은 내년 1월 사업계획서 평가와 광주라이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추가 선정이 마무리되면 시는 총 17개 대학과 함께 16개 단위 과제, 72개 세부 사업을 공동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여수 석유화학 위기 극복 힘 모은다

위기대응 협의체 확대회의

전남도가 여수 석유화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을 모색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확대회의를 열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추진한 주요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NCC 설비 감축에 따른 대응 등 구조조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남도와 여주시, 산업계, 연구기관, 노동계, 시민단체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현재 위기 상황과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여수 석화기업의 2025년 2분기 생산액은 전년 동기의 10.4% 줄었고, 같은 기간 수출액도 13.9% 감소했다. 고용률은 64.2%로 0.5%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4% 이상 증가했다. 플랜트 건설노조 조합원 수도 전년대보다 61% 줄어드는 등 산업 전반의 일감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수산단 내 NCC 기업들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NCC 설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화학 구조개편 3대 방향'에 따라 대응에 나선 상태다.

다행히 이날 초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별법은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규제특례, 세제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특별법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역 핵심 현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